홍콩 시위 체포자 2,400여 명 … 1/3이 청소년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로 시작돼 민주화 요구로 확대된 홍콩 시위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뉴시스' 에 따르면 매튜 청 홍콩 정무사 사장(한국 총리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위로 인해 체포된 시민은 총 2,379명이다. 이 중 16세 이하가 104명, 18세 이하가 759명으로 집계됐다." 고 발표했다. 체포자의 3분의 1 가량이 청소년인 셈이다. 최근에는 고교생 한 명과 중학생 한 명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은 뒤 기소되기도 했다.

청 사장은 미성년자들이 다수 체포된 것과 관련해 "놀랍고 가슴이 아프다." 면서 "교사와 부모들이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학생들을 잘 지도해달라." 고 당부했다.

홍콩에서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격화되면서 대학생은 물론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청 사장은 "정부는 시민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 이라면서 "폭력을 멈추고 (정부에) 시간과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고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기대지 말라." 면서 시위대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 한 젊은 시위자가 진압 경찰관에 붙잡혀 꿇혀 앉혀진 채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그는 '복면 금지법을 철회하라' 는 지적에는 "복면 금지법은 경찰의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라면서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파괴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개인의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니카라과 언론 줄줄이 폐간 위기 정부 통제·자금난 때문

니카라과의 언론들이 정부의 통제 속에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줄줄이 폐간 위기에 놓였다.

1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니카라과 일간 '오이' (Hoy)는 최근 인터넷판 발행을 중단했다. 오이 발행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판을 중단한 것" 이라며 "생존을 위해 한 푼까지 아끼고 있다." 고 말했다.

오이의 자금난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정부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종이와 잉크 등 신문 인쇄에 필요한 물자들의 수입 통관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언론단체 등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에서는 지난해 4월 오르테가 정부의 연금 개혁을 계기로 정치·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이는 일단 돈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판을 중단하지만 비축해둔 종이마저 떨어지면 지면 대신 인터넷판만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니카라과 언론은 오이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엔 일간지 엘누에보디아리오가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폐간했고, 같은 날 무료 신문 메트로도 6년 만에 폐간을 결정했다.

발행 지면을 8면으로 대폭 줄여 버티던 최대 일간지 라프렌사는 최근 부록으로 발행하던 풍자 주간지 엘아소테를 25년 만에 폐간하기로 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라프렌사마저 폐간되면 니카라과 언론 통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정부는 언론 탄압을 멈추고 종이 통제와 같이 언론 자유를 해치는 간접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터키, 시리아 쿠르드 공격 … 미국 "개 입 않을 것"

터키가 결국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터키군과 시리아국가군(SNA)이 시리아 북부에서 PKK(쿠르드 노동자당)와 YPG(쿠르드족 민병대), 다에시(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아랍어 약자)에 대한 '평화의 샘' 작전을 시작했다." 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 으로 불리는 쿠르드족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방어를 위해 북동부를 비운 사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사실상 자치를 누려왔다. 2014년 IS가 발호하자 쿠르드족은 IS로부터 자치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항전했고, IS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활약을 눈여겨본 미군은 본격적으로 쿠르드족을 지원했고, YPG는 IS 격퇴 지상전의 선봉에 서게 됐다.

쿠르드족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미국의 동맹 세력으로 입지를 굳혔으며, '독립국 건설' 이라는 이들의 꿈도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웃의 지역 강국 터키는 불안한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전 세계 쿠르드족의 수는 약 3천만~4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천500만명 이상이 터키 동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독립국의 기치를 올릴 경우 가장 큰 불안에 노출될 국가가 바로 터키인 셈이다.

백악관은 지난 6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할 것이며, 미군은 이 작전에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에 버림받고 터키의 창칼 앞에 선 쿠르드족은 독립국 건설을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 생존을 위해 알아사드 정권의 우산 아래로 들어갈 것인지를 두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